

“5월 고용동향 내용 충격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정부, 심각성 인정해야” 통계청, 5월 취업자수 2706만40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7만2000명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정부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수는 2706만40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5월 취업자 증가폭은 금융위기 영향권인 2010년 1월 이후 가장 작다. 실업지표도 나빠졌다. 전체 실업자수는 11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6000명 늘었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다섯달째 1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고용 통계 방식이

현재 모습을 갖춘 2000년 이래 5월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 “단기적으로 큰 개선을 보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시장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함께 공감하면서 그런 바탕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주장했다.

정부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역할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기업과 시장에 편향이 좀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는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단기적 대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세 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소득분배 악화와 연계

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을 포함한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계층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의 원활한 집행은 물론, 내수 제고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 규제혁신, 필요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라는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범부처적으로 행기도록 해야겠다. 적은 수의 일자리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처가 다 같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다잡하자”고 덧붙였다.

/뉴스



김동연 부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전북중기청, R&D 기획·시제품 개발 교육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R&D 기획 및 신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획역량강화 교육(3회) 및 기업별 맞춤형 코칭(6회) 프로그램을 5월부터 매월 운영하고 있다.

6월은 군산 오식도동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및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신재생에너지융합특성화관에서 21일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연구기관(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대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주제(기술)를 사업화하는 방법, IP제품 이중 특허 결합 및 벤치 마킹, 특허 분쟁 발생 대응 방법)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우리지역내에서 R&D 기획 및 신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나 창업 희망자 등은 무료로 수강(☎063-210-6443)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LG유플러스, ‘러시아 월드컵’ 모바일 생중계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모바일 앱 서비스 ‘U+비디오포털’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U+비디오포털’의 월드컵 중계는 LG유플러스 고객뿐 아니라 타사 모바일 가입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U+비디오포털’ 앱을 받아 무료 회원가입을 하면 실시간 월드컵 경기, 하이라이트 등을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모바일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월드컵 기간 동안 비

디오포털 메인화면에 생중계 바로가기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첫 화면에서 보다 손쉽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U+비디오포털을 통해 고객들이 통신사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모바일 무료 중계를 준비했다”며 “오는 18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를 비롯해 실시간 경기, 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고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제철 과일 먹기 힘드네... 참외값 한달새 74% ↑

제철 과일마저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정바구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참외 10kg 도매가격은 4만3041원으로 전년(2만14739원)보다 74%나 올랐다. 평년(2만16169원)과 견줘도 64.9%나 된 가격이다.

사과·배 같은 저장과일이나 딸기 출하가 마무리되고 수박이 본격적으로

로 나오기 직전의 ‘간절기’인 5~6월에 참외가 출하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제철을 맞았음에도 비싸서 못 사 먹는 과일이 됐다. 출하량이 감소한 탓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과채 관측동향에 따르면 이달 참외 출하량은 1년 전보다 5.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고령화로 출하 면

적이 작년보다 3.5% 감소한데다 5월 잦은 비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으로 수량이 불량해져 단수(단위면적당 수확량)도 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참외와 함께 제철 과일 수박은 1톤(8~9kg)에 1만2000~1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년 전보다 3% 낮지만 평년보다는 3% 높은 가격대다.

농업관측본부가 지난달 28일 소비자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박

구매조사에서는 수박 구입을 1년 전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이 24%로 늘었다는 응답(13%)보다 높았다. 5월 서늘한 기온에 대체소비 가능한 토마토 등의 가격이 내린 탓도 있지만 봄철 잦은 강우와 저온 여파로 생육이 부진하면서 당도와 모양 등 품질이 좋지 않아 소비자들이 덜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 악화에 이달 수박의 단수는 1년 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추후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

/김영태 기자

영·유아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식약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 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구아검, 펙틴 등 식품첨가물 14 품목의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유아식 국내생산액은 2014년 2086억원에서 2016년 2506억원으로 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등이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해 영·유아용 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현재 구아검의 사용량 기준이 없으나 앞으로 2g/kg이하,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이하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은 영아용이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기존 인정사태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공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돼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금융사 예금보험료 1등급 전년비 대폭 감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평가하는 차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금융회사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15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7사업연도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경영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해 매년 한차례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차등평가 결과 1등급 61개사(22.7%), 2등급 177개사(65.8%), 3등급 31개사(11.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등급 109개사(40.5%), 2등급 128개사(47.6%), 3등급 32개사(11.9%) 대비 1등급이 48개사 감소했다.

1등급이 대폭 줄어든 것은 평가 기준 강화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는

2016년 10월 개편된 차등평가 모형이 처음 적용, 은행업권 바젤Ⅲ 및 금융투자업권 순자본비율 도입 등의 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평가지표 도입, 평가기준 변경 등이 반영됐다.

저축은행업권, 순해보험업권 등 일부업권의 1등급 판정 현상이 해소되는 등 평가모형의 부실위험 판별력이 높아졌다.

다만 전체 업권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0.03% 증가(약 5억원)하는데 그쳤다.

업권별 보험료 납부액 증가는 대부분 부보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지난해 말 결산 269개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할 보험료 규모는 1조7800억원으로 업권별 납부 보험료 비중(은행 52.2%·생보 25.7%·손보 9.9%·금투 0.9%·저축은행 10.5%)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